

꽃범호 처음 울던 날 그라운드 떠나갔다네



“합성소리 들었죠?”라며 눈시울을 붉힌 이범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20년 선수 생활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했다.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가 2001번째 경기로 자신의 프로 야구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범호는 지난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6번 타자 겸 3루수로 은퇴 경기를 치렀다.

2회 첫 타석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을 골라낸 이범호는 4회 2사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그리고 경기 전 ‘5회’를 예고했던 이범호에게 극적으로 마지막 타석이 돌아왔다.

0-7로 뒤진 5회말 7번부터 공격이 시작된 만큼 6번 이범호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KBO 리그 통산 17개의 만루홈런을 터트리면서 ‘만루의 사나이’로 불린 이범호에게 신은 미소를 보였다. 야수선택을 놓고 한화측의 의의제기로 비디오판독까지 이뤄져 만들어진 만루였다.

만루에 이범호가 등장하자 매진(2만500석)이 기록된 챔피언스필드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KIA 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범호를 외치며 ‘만루 사나이’의 등장을 반겼다. 경기장이 울릴 정도로 큰 함성이 이어졌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이범호는 한번 방망이를 휘둘러 볼을 골랐다. 그리고 4구째 이범호의 방망이가 움직였다. 아쉽게도 공은 멀리 뺄지 못하고 좌익수 글러브에 막혔다.

KIA-한화전 3루수 출전 은퇴경기

20년 프로선수 생활 마감

5회말 극적인 만루 기회

팬들 기립해 “이범호” 연호

좌익수 뜬공으로 아쉬움

가족·동료·팬들 속 눈물의 은퇴식

이범호는 6회초 수비 때 글러브를 끼고 3루로 향했다. 오랜 시간 굳게 지켜왔던 3루를 밟은 이범호는 팬들에게 인사를 한 뒤 박찬호에게 자리를 주고 물러났다. ‘선수’ 이범호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꼭 이기고 싶다”던 후배들의 바람과 달리 경기는 5-10패배로 끝났다. 하지만 이범호에게는 가장 잊을 수 없는 경기 중 하나가 됐다. 경기가 끝난 뒤 만원 관중 앞에서 성대한 은퇴식을 치른 이범호는 선수로서 마지막 인터뷰에 나섰다.

마지막 타석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범호는 “합성 소리가 너무나도 컸다. 그 합성소리 때문에 교체돼서 나올 때 눈물이 나왔다”며 “마지막 타석에 치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화려하게 마지막 타석을 하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쉬움은 남았다. 모두가 기다렸던 결과도 낼 수 있었지만 방망이가 너무 빨랐다.

이범호는 “(비디오 판독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늘이 마지막 타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이프 같다. 스윙 하자’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전에 타 이미지가 늦어서 이번에는 삼진을 막더라도 빨리 (타 이미지를) 두자는 생각이었다.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점점 볼이 느려진다는 것을 생각을 안했다”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이날 이범호의 가족은 경기장에 ‘꽃범호는 이제 또 다른 꽃으로 피어나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다.

찬스에 강했던 클러치 히터이자 뛰어난 리더십으로 3년간 팀을 이끈 주장으로 그라운드에 꽃을 피웠던 이범호. 그가 2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지도자로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등번호 ‘25’ 물려받은 박찬호

“이범호 선배같은 큰 선수 되겠다는 꿈 생겨”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이범호가 은퇴식을 치렀던 지난 13일, 이범호에 이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박찬호였다.

박찬호는 은퇴식 말미에 진행된 유니폼 전달식에서 ‘대선배’ 이범호 옆에 섰다. 이범호가 자신이 사용했던 배번 25번을 박찬호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

이범호는 ‘25번 박찬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후배에게 입혀주고 가슴 뭉클한 포옹을 나눴다. 유니폼을 벗겨 낸 선배도 새 유니폼을 입은 후배도 눈물을 보였다.

이범호는 이날 경기 전 “지금 KIA 타이거즈에서 주전 3루수는 박찬호 선수라고 생각한다. 3루수에게 (번호를) 주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했다”며 자신의 후계자로 박찬호를 낙점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찬호가 고맙게도 받아줬다. 내년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즌이라도 찬호가 내 유니폼 입고 뛰어주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며 “어떤 후배, 어떤 선수가 아니라 KIA 타이거즈 지금 주전 3루수에게, 그리고 좋아하는 후배에게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다”고 덧붙였다.

팀을 물론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의 배번을 물려받게 된 박찬호는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

다. 박찬호는 “처음에는 ‘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동시에 부담감도 있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박찬호의 올 시즌이었다. 특히 3루수로 이범호의 번호를 물려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박찬호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올 시즌이다. 특히 3루라는 포지션은 세상에서 제일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남은 시즌 25번을 달고 그라운드에 오르게 됐지만 내년 시즌 박찬호는 ‘몇 번 선수’가 될지 모른다. 박찬호는 “내년에도 25번을 달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25번이라는 번호는 단타보다는 장타 상징성이 있다. 아무래도 우리 팀은 더 그렇다. 올 시즌 뛰어보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25번을 받으면서 박찬호의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책임감과 들고 새로운 꿈도 생겼다.

“내 꿈이 언제까지나 똑딱이타자는 아니다. 야구의 꽃은 홈런이다”며 미소를 보인 그는 “최근에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기도 하고



이범호 선배님의 기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은퇴식을 본 것은 처음이다. 너무 뭉클했다. 선배님께서 게을러지지 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선배님도 나도 목이 메어서 말을 잘 못했다”며 “만원 경기장에서의 은퇴식이 너무 감동이었다. 꿈이 생겼다. 이범호 선배님 같은 은퇴식을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할레프, 생애 첫 ‘윌블던의 여왕’

세리나 윌리엄스에 55분만에 2-0...개인통산 두번째 메이저 제패

시모나 할레프(7위·루마니아)가 윌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3800만파운드·약 558억원)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할레프는 1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윌블던의 올 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리나 윌리엄스(10위·미국)를 2-0(6-2 6-2)으로 물리쳤다.

지난해 프랑스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로 메

이저 대회를 제패한 할레프는 우승 상금 235만파운드를 받았다. 이는 한국 돈으로 약 34억7000만원 정도 된다.

할레프는 윌리엄스와 상대 전적에서 이 경기 전까지 1승 9패로 절대 열세를 보인 데다 윌블던에서 처음 결승에 오른 경력도 이 대회에서 7번이나 우승한 윌리엄스에 비해 떨어진다라는 평이 많았다.

그러나 할레프는 윌리엄스의 첫 서브 게임을 브레

이크하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고 경기 시작한 지 불과 11분 만에 게임스코어 4-0을 만들었다.

25분여만에 1세트를 내준 윌리엄스는 2세트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게임스코어 2-2에서 시작한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백핸드 에러가 연달아 나오면서 결국 게임을 내줬고 할레프는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 4-2로 달아났다.

맥이 풀린 윌리엄스는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고 패색이 짙어졌다. 할레프는 불과 55분 만에 ‘테니스 여제’ 윌리엄스의 무릎을 꿇렸다.

/연합뉴스

